



양돈인 부인회를 조직한 **홍성지부**를 찾아서

생산에서 소비홍보까지 앞장서 실천하는 홍성지부

민주화 물결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욕구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에따라 생산자단체는 많은 회원과 견고한 조직을 가지고 공개적이고 건전한 목적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할 때 주위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체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먼저 계산하기 보다는 협회에

가입해서 양돈업계와 지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부의 발전과 생산자의 권익은 스스로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원칙은 과거와 같이 양돈장 운영에만 치우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중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식이 아니라 생산자 모두가 공동 노력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앞장서서 실천하려는 지부가 있어 양돈업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6-19번지에 위치한 홍성지부(지부장: 유창조)를 찾은 날은 장마가 시작돼 넓은 들판을 안개로 가득 매워 시야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찌푸려 있었다.

서울에서 온양을 거치는 고속버스를 타고 1백80여분간 잘 단장된 도로를 따라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시골 내음이 상큼 코끝에 와 닿았고, 이미 지부에 들어섰을 땐 안개가 걷힌 날씨가 기자를 반겨 주었다.

홍성지부 부인회는 관련산업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

대한양돈협회 홍성지부, 이제 양돈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에서 벗어나 회원부인들로 구성된 부인회에서 스스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게시판에 「영양 한짐 건강 한짐」이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신용순 운영위원으로부터 지부운영을 지원하고 돼지고기 소비홍보와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부인회를 조직했다는 조직기구를 상세히 듣는 순간 지부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홍성지부 부인회는 지난 6월 회원부인 및 관련산업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했다. 회장

에 정미자(광숙농장), 부회장에 이석순(백월선축산), 총무에 신수자(부자농장)를 주축으로 부인회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부인회의 주된 사업은 특별하게 눈에 드러난 것은 없었다. 다만 지부운영에 간접적인 지원방침을 세운 것은 홍성지역 내 회원관리 및 신규회원 가입, 회원을 위한 교육훈련, 지부운영 지원사업, 소비자 교육과 소비촉진 사업, 지역내 소비자 단체와의 유대강화 사업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면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국 75개 지부중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유창조 지부장은 지부활성화를 위해 부인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부인회에 바라는 사항은 의외로 많았다.

첫째, 일반 양돈농가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협회를 홍보하는 것이다.

회원 부인들이 지부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협회가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도로 인식시켜 평소에 비협조적인 마음가짐에 대화의 장을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었다.



둘째, 유관기관 및 타여성 단체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듯이 타모임이나 주부 또는 여성단체와 교류관계를 갖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다.

세째, 돼지고기요리 확대 보급이다. 중앙회와 별도로 기회 있을 때마다 돼지고기요리 강습회 등을 통해 회원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소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인회에 바라는 사항이 많듯이 조직 기구로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전국 75개 지부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운영을 외화보다는 내실에 역점

그리고 홍성지부는 '86년 전국양돈인대회에서 중앙회로부터 회원 확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홍성지부는 66명의 회원이 조직의 방대함을 자랑하면서도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성지부는 '83년 1월에 중앙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창립된 후 손황 초대지부장, 이대우 2대지부장, 전찬수 3대지부장, 전복규 4대지부장이 지부를 이끌어 오다 올해부터 유창조 지부장이 지부운영을 맡으면서 외화보다는 내실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6월 지부윌례회의에서



전회원의 동의를 얻어 협회 일에 무성의한 회원 2명을 제명 처리하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유지했다. 이와같은 가슴 아픈 일은 지부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알수 있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원의 정예화를 꼭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고, 타 지부에서 본받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홍성지역 양돈농가중 약60%정도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전국 일원의 손꼽히는 양돈단지 치고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다. 그래서 지부장 이하 운영위원들은 협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나 하계 수련회때 각 약품사와 사료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회원 을 참여시켜 양돈업의 공동관

심사를 논의한다고 했다.

전회원의 홍보요원화는 협회의 자랑

지난 7월 2일 홍성지역에서 개최된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생들의 돼지고기소비 홍보 자전거 캠페인에서 회원을 비롯한 일반양돈농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어깨 띠를 두르고 팜플렛을 배포해 주위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참석자 전원이 홍보요원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유창조 지부장은 지부에서 하고 있는 양돈기구 알선사업, 약품공동 구매사업 등의 경제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이익금을 적립, 회비로 충당하지 않고 지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일대 양돈농가들은 무임승차하고도 무임승차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전양돈인들이 모두 협회에 참가한다면 그 만큼 생산자단체인 협회의 힘은 막강할 것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아무튼 서로 도우며 업계의 발전을 추구해야만 경쟁사회속에서 살 수 있다. 이에 반해 자기 혼자만이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업계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취재: 곽삼섭 기자